

주현절 후 여섯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6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0년 2월 1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새 3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번 시편(Psalm) 16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석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히브리서(Hebrews) 3:1-6	박문복 집사
찬 양 Anthem	“내 주께로 돌아가리”	찬양대
설 교 Sermon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새 532)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압” (새 43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고,

우리는 교만했으며, 또한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며,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탄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3:2, 마 3:8, 시 51:4,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글개역 **히 3:1**)

“Therefore, holy broth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thoughts on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whom we confess.” (NIV **Hebrews 3: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16 (주일)	2/17 (월)	2/18 (화)	2/19 (수)	2/20 (목)	2/21 (금)	2/22 (토)
	창49	창50	출1	출2	출3	출4	출5
본문	눅2	눅3	눅4	눅5	눅6	눅7	눅8
	욥15	욥16,17	욥18	욥19	욥20	욥21	욥22
	고전3	고전4	고전5	고전6	고전7	고전8	고전9

수/요/찬/양/집/회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2/19 오후7:30)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찌니”(민 6:22-27)
토요 새벽기도회(2/22 오전6:30)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눅 11:1-4)

지난 주일(2/9) 말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히 2:10-18)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내린 것이 ‘기독교론(Christology)’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의내린 것은 ‘구원론(Soteriolog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들(기독교론, 구원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14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존재가 사단(마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가 다 마귀의 일인데, 우리에게는 마귀의 일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멸하신 것입니다. 2)둘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15절). 마귀가 우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는 도구가 (바로) 죽음의 공포인데, 예수님의 대속(Redemption)의 죽음으로 ‘죽음의 죽음’이 시작되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절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셋째,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18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되신 예수님만을 좇아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